

무주군-에어로케이항공 ‘맞손’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모금 본격화

지역관광 활성화·상생 협력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은 10일 에어로케이항공(주)과 '지역관광 활성화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연계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연특별시 무주의 자연·환경·문화 자원을 토대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채정훈 에어로케이항공(주) 영업운송본부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 했다.

무주군과 에어로케이항공(주)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및 업무기획,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 △항공노선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수익 증대를 위한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협약이 자연특별시 무주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새로운 지역경제 활력 모델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세계를 무대로 유엔이 인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에어로케이항공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10일 에어로케이항공(주)과 '지역관광 활성화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어로케이항공 측은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자연특별시 무주,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이자 유엔이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무주군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인문 자원의 가치는 상상 그 이상"이라며 "우리 항공사를 통해 무주가 세계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와 신규 관광상품 개발·운영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어로케이항공(주)는 2016년 5월에 설립된 국내 항공사로,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국내외 18개 노선에 취항하고 있으며, '사람을 위한 따뜻한 항공사'를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용과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발전·군민 복지 향상 보탬 되길”

무진장축협 임직원들,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년 연속 기탁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송제근) 임직원들이 제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40만 원을 기탁했다.

장수군은 10일 군청에서 최훈식 장수군수, 송제근 조합장, 백형수 장수지점

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부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이어오고 있어 지역사회 실천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송제근 조합장은 "3년째 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장수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무진장축협에서 생산한 한우를 비롯해 장수군 답례품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한우 번식우 기반 확대 시범사업 성과 공유

장수군은 농촌진흥청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 일환으로 번암면 유정리 태화농장에서 축산농가와 축산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번식우 기반 확대 시범사업 성과공유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3개 한우농가에 한우의 번식 효율과 송아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최신 축산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코팅 베타카로틴 번식첨가제 급여를 통한 수태율 개선과 원적외선을 이용한 송아지 집중관리실 설치 운영 등이다.

우선 한우 번식우의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 코팅 베타카로틴을 활용한 보조

사료를 공급하고, 전문가 맞춤형 사양관리 컨설팅을 병행했다.

또한 번식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원적외선 시스템을 이용한 송아지 집중관리실을 추가 보급해 동물복지 차원의 체계적 관리환경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송아지 육성률이 높아지고, 한우 번식우의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참여 농가들이 각자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코팅 베타카로틴 번식 첨가제 활용의 효과성과 송아지 집중관리실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현장사례를 발표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위기브'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계약 체결

무주군이 온라인 모금 확대를 위해 지난 5일, 사회적 기업 (주)공감만세가 운영하는 민간 기반 기부 플랫폼 '위기브'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기브'는 간편 기부 체계를 구축해 답례품 관리와 홍보 캠페인 지원, 기부 보고서 제공 등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위기브'를 통해 약 44억 4천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무주군은 이번 계약을 기반으로 온라인 홍보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7일부터 '위기브'를 통한 모금을 본격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쉽고 편하게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며 "답례품 재구성으로 인한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기대가 더욱 크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위기브'와의 협약에 앞서 지난 10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3만 원대 균일가 체계로 개편해 기부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는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인기 품목 위주로 구성해 품질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은 현재 '고향사랑e음', '헬로', '위기브' 등 온라인 홍보를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제3회 고향사랑기부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배추 친환경 방제 기술 현장평가회 개최

진안군은 10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과 원예특작과학원이 함께 개발한 식물유래 천연물질 기반의 친환경 방제 기술에 대한 현장평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평가회에는 농촌진흥청과 전북도농업기술원, 지역 농업인, 기술이전 업체 등이 참석해 실증 결과와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군은 최근 기후 온난화로 배추·무 등 주요 채소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준고랭지에 위치한 진안군은 봄·가을배추 재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청벌레·진딧물 등 해충이 급증해 수확기를 앞둔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친환경 재배 농가의 경우 병해충 관리의 어려움으로 친환경 재배를 포기하고 화학농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병해충 관리가 여전히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과 원예특작과학원이 협업해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기술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안군 대규모 배추 재배지(전면적 농가)에서 실증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식물유래 천연물질 기반의 친환경 방제기술은 관행 농약과 견줄 만한 수준의 해충 방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성수면 행복주택' 12세대 입주자 모집

진안군은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을 위해 12세대 규모의 '성수면 행복주택'을 조성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모집은 농촌유학 가족,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농촌유학을 위해 진안군 외 지역에서 성수면 내 학교로 전학 예정인 농촌유학 가족 6세대를 모집해, 외부 거주 가정의 이주를 통한 학교 활성화

와 지역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성수면 행복주택'은 성수면 외공리 680번지 일원(의 7필지) 2,026㎡ 부지에 조성되며, 지상 3층 다가구주택(연면적 1,086.9㎡) 형태로 74㎡형 9세대, 61㎡형 3세대 등 총 12세대 규모다.

입주 신청은 11일부터 20일까지이며, 2025년 12월 준공 후 2026년 1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은 300만 원, 월 임대료는 20만~25만 원 수준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지방계약 실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진안군은 10일 진안군청 강당에서 2025년 지방계약 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하는 지방교육 일환으로, 전문강사가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청 지자체를 방문하여 계약 실무 등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에는 분청을 비롯한 읍면, 사업소의 신규자, 사업감독관, 예산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기본 개념에서부터 실무에서 활용하는 행정의 절차와 유의점, 대응방안 등을 배우며 내실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강사로는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며 지방회계 분야의 실무에서 28년 경력을 갖춘 한길옥 전문강사가 초빙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지방계약 관련 주요 법규 및 절차 △입찰·계약 집행 시 유의사항 △회계·계약 감사사례 및 대응방안 △현장 중심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 중심 강의가 진행돼 청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진안=우태만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산불방지 대책기간 일부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산불위험이 높은 가을철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통제되는 탐방로는 향적봉~영각탐방지원센터(17.5km), 횡경재~신봉령(7.8km) 등 전면 통제 10개 구간, 개방 탐방로는 설천봉~향적봉(0.6km), 구전동탐방지원센터~백련사~향적봉(8.5km), 황점~삿갓재(3.4km), 서창공원지킴이~안국사(3.8km) 4개 구간이다.

이재문 재난안전과장은 산행 전 국립공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063-322-3174)를 통해 개방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흡연, 취사, 기타 소각행위 등 산불위험 행위 금지 등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